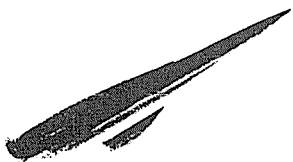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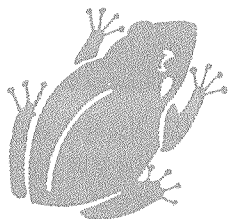


뱀·개구리를 생식하신 적이 있습니까?

스파르 가눔증을 조심하십시오!



폐결핵의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으로 개구리를 생식하고 2년이 지난 후 가려움증과 압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어느 부인은 해당부위에 멍힌 멍울을 없애는 수술과정에서 6.5cm 길이의 충체를 발견해 냈다. 스파르 가눔이었다.



1972년 가을철, 두메산골에서 36세의 한 가정주부가 병원을 찾아와 진찰을 받은 일 이 있다. 우측 유방의 우상방에서 호두만한 크기의 멍울을 찾을 수 있었다. 약 10개월 전부터 가벼운 가려움과 대수롭지 않은 압 통을 나타내면서 서서히 커져 행여 암이 아닌가 걱정된다 하였다. 수술적으로 처리 하기로 하여 그 몽우리를 절개하였더니 기 대했던 고통은 나오지 않고 다만 소량의 맑은 물이 흘러 나왔다. 절개부위를 확장시 키고 내용물을 꺼내었더니 그것은 젓색을 띤 약 6.5×0.3cm 크기의 길고 가는 한마 리의 충체(벌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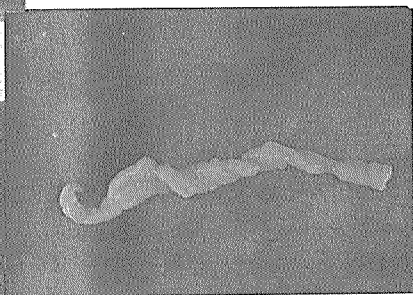
이런 일을 당하는 의사라면 의례히 질문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지만 이 부인에 게 혹 뱀이나 개구리를 날로 먹었거나 아 니면 조리한 사실이 있었는가 물었다. 아니 나 다를까, 자기는 폐결핵에 걸려있기 때문 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년전 2마리의 개구리를 날로 먹었노라 대답하였다.

1976년 봄철, 급성 복막염으로 사경이 된 37세의 이모씨라는 응급환자가 있었다. 작 은 창자가 터졌고 그 주위로 창자들이 달 라붙어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고 있음을 보 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3.0~7.0cm 에 이르는 길고 짧은 4마리의 유백색 충체 를 발견, 충체를 포함해 상한 창자를 잘라

내었다.

긴급한 상태에서 벗어난 환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즉 자기는 서울태생이며 별다른 탈 없이 지냈으나 약 2년전부터 만성 위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여기 저기에서 약을 구입하여 치료를 해보았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였고, 영양보충과 보양에 좋아해서 약 7개월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뱀을 생식하였으며, 입원 3주전부터 심한 소화불량과 함께 복부의 팽만감과 지속되는 하복부의 불편감 및 복통이 나타났고 시일이 경과되면서 미열과 오한이 겹

민물에 사는 물벼룩인 싸이클롭스(Cyclops) 및 디압토무스(Diaptomus)이고 이들 속에서 발육, 성장한 애벌레는 제2중간숙주인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 등에 들어가 더욱 발육, 성장한다. 이 시기의 애벌레를 스파르가눔이라 하는데 이것을 고양이나 개에 먹이면 그들의 소장내에서 성충으로 된다. 그러나 제2중간숙주 내에서 성충으로 발육하지 못하고 애벌레상태로 기생하게 된다. 사람도 제2중간숙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애벌레로 온몸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그 기생장소에 따라 여러



치게 되었으며 입원 2일전 가벼운 음주후 갑자기 심한 복통과 고열, 구토증이 나타나 건디다 못해 왔었노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충체는 고양이나 개의 소장내에 기생하는 만손씨 열두조충(만손氏 裂頭條蟲)이라 부르는 촌충류의 애벌레로서 스파르가눔(Sparganum) 또는 리굴라상 유열두조충(Liguia 狀 幼裂頭條蟲)이라 통칭되고 있다.

만손씨 열두조충은 충란으로부터 성충까지 되려면 2단계의 중간숙주를 거쳐서 중숙주에 들어가야 한다. 그 제1중간 숙주는

가지 증상이 나타나며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만손씨 열두조충은 세계도처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등 극동지역에 많다. 1970년의 보고에 따르면 전라북도 이리지방의 개에 있어 4.6%가 성충에 감염되어 있었다. 그리고 1981년도의 전국적인 조사보고에 따르면 개에 있어 0.9%가, 그리고 고양이에 있어 0.7%가 충란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1960년도 중반기에 있어서의 제2중간숙주인 개구리는 17.5%의, 그리고 뱀은 29.2%의 애벌레 감염률을 보인 바 있어

우리나라의 뱀과 개구리는 이들 애벌레를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구리에서는 주로 넓적다리의 피하조직에 1~2마리가 기생하는 것이 상례이며 뱀에 있어서는 피하조직, 근육 및 내장등에서 5~10마리 정도가 흔히 발견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1~2마리의 기생이 보통이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15마리까지도 검출된다. 사람에게서 발견된 애벌레 즉 스파르가눔의 길이는 보통 10cm 내외이나 50~70cm에 이르는 것도 드물지 않았다.

사람에 있어서의 감염은 대체로 3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감염된 제1중간숙주, 즉 물벼룩이 들어있는 생수를 음료수로 사용할 때 들어와 다른 제2중간숙주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장, 발육하여 스파르가눔이 된다. 둘째는 폐결핵, 매독, 신경통, 관절염 등의 민간요법으로 또는 원기회복, 보양, 보음, 영양물 섭취 등의 수단으로, 혹은 전쟁이나 기근등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뱀이나 개구리를 잡아 날로 먹는데서 올 수 있다. 세째는 드문 예이긴 하지만 안질이나 피부염의 치료를 목적으로 뱀 또는 개구리의 껍질이나 근육을 찜질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애벌레가 침입하기도 한다. 또한 뱀이나 개구리 등에 기생하던 스파르가눔은 손가락이나 식기 및 조리기구 등에 쉽게 달라붙기 때문에 취급자의 부주의로 감염될 수 있으며 돼지고기나 민물고기의 생식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24년 첫 인체 감염례가 보고되었으며 그 동안 70차례 가까이 보고, 기록되어 있으나 보고되지 않은

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파르가눔은 사람의 어느 부위에서든 피하의 결체조직이나 지방조직내에 주로 기생하는데, 많은 경우 복벽, 음낭, 서혜부(사타구니), 대퇴부, 흉벽, 안와부 등에 엄지손가락 끝마디 크기 또는 달걀크기의 몽우리를 형성한다. 이를 충낭(벌레주머니)이라 하며 뱀이나 개구리의 생식후 보통은 수개월내에 나타나지만 드물게는 십수년이 지난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에서의 생존기간은 36년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충낭이 피하조직에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로 무통이지만 때로는 가려움과 둔통, 압통 또는 부종이 있을 수 있고, 비뇨기계통에 생기면 요통, 혈뇨, 빈뇨 등이 유발되기도 하며, 안와부에 생기면 눈의 심한 둔통, 부종, 안구돌출, 안구의 운동장애, 현기증과 함께 자극이 심하여 많은 눈물이 흐른다. 결막하에 생기면 독혈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각막에 궤양이 형성되기도 하며 혼탁이 초래되어 실명에 이르기도 한다. 만일 충낭을 형성하지 않고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파열하거나 뇌를 침범하면 사망을 초래하기도 하며 장천공의 원인이 되어 급성 복막염으로 중태에 빠지기도 한다.

만일 자기 몸 어디에선가 몽우리가 만져지고 제2중간숙주인 뱀이나 개구리를 생식한 경험이 있으면 이를 의심하고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예방의 지름길은 생수를 마시지 않는 것과 어떠한 목적으로든 뱀, 개구리, 새, 돼지, 민물고기등 제2중간숙주에 해당하는 것들을 날로 먹지 않는 것이다.